Macro

한국 GDP : 하방만큼 상방도

Economist 이정훈, CFA
jhoon.lee@daishin.com

- 1Q GDP +1.7%QoQ 성장, 수출 호조 외 소비/투자 등 내수도 고르게 반등
- 2026 년 성장률 전망 2.0% → 2.5%로 상향, 명목 성장률은 10% 상회 전망
- 중동 전쟁 불확실하나, 지금은 하방 위험만큼이나 상방도 열려 있음

1 분기 GDP 5 년 여 만에 최대폭 성장

한국 1Q GDP 는 +1.7%QoQ, +3.6%YoY 깜짝 성장해 당사 예상치(+1.1%QoQ)와 시장 전망치(+0.9%)를 모두 큰 폭으로 상회했다. 전기대비 성장률 +1.7%는 코로나 19 확산이 한창이었던 2020 3 분기 +2.2% 이후 최고치이다.

한층 약해진 양극화 성장 논리

이번 GDP 성장이 서프라이즈였던 이유는 단순히 반도체 수출에만 있지 않다. 사실 반도체 덕에 수출이 좋은 것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민간소비(+0.5%), 건설투자(+2.8%), 설비투자(+4.8%) 등 여러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일부 의구심이 남아있었던 것은 'IT 부문만 좋다'라는 양극화 회복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번 1 분기 성장을 통해 이러한 우려는 상당 부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소비가 +0.5%로 꽤 견고한 성장률을 이어간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4 월 소비심리는 급락했지만, 실제 주간으로 확인되는 신용카드 데이터는 별다른 둔화가 없다. 당사는 현재 고공행진 중인 주가가 가계의 실제 소비와 심리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26 년 2.5% 성장 예상, 불확실성에도 하방만큼이나 상방도 열려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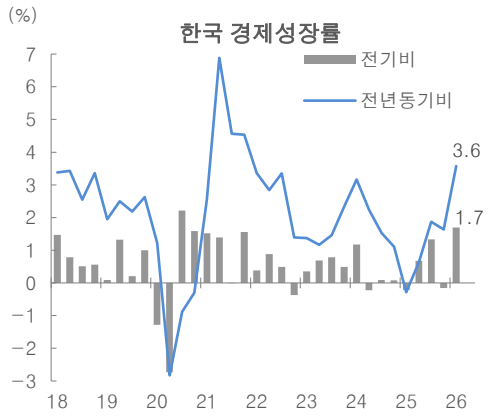
당사는 2025 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한다. 2 분기 성장률은 1 분기 서프라이즈에 따른 기저 효과, 정유/석화 산업의 생산차질로 일시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1 분기 깜짝 성장 덕에 산술적으로 연말까지 제로(0) 성장만 유지해도 2.4%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2.5% 정도의 성장이라면 올해 GDP 와 소비 모두 마이너스(–) 갭을 모두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 모멘텀은 하반기에는 조금씩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투자를 제외한 내수 부문은 주식 시장이 큰 흔들림을 보이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유류비 최고가격제나 조만간 집행이 본격화될 추경 등으로, 일부 취약계층과 달리 경제 전반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당사는 올해 연간 명목 성장률이 2002 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니라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금액의 일부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내 경제에 파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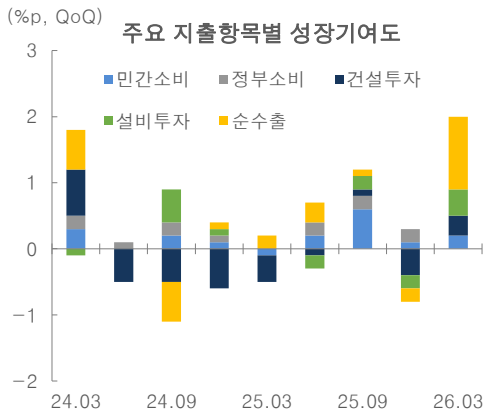
중동의 전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지금은 하방 위험만큼이나 상방도 열려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만약 수주 내 중동 문제가 원활히 해결된다면, 올해 성장률도 추가 상향될 여지가 있다.

그림 1. 한국 1Q GDP 깜짝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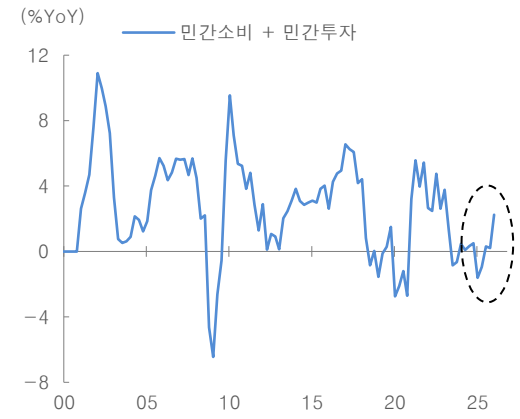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수출 외에도 내수가 고르게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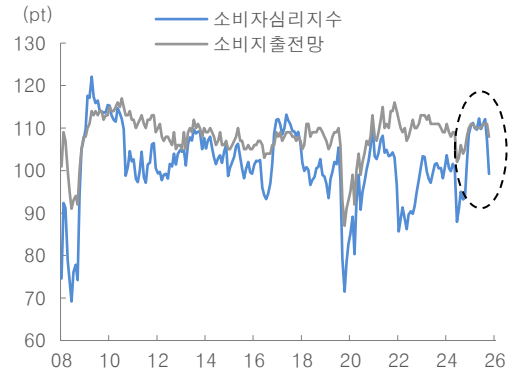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내수 회복세 완연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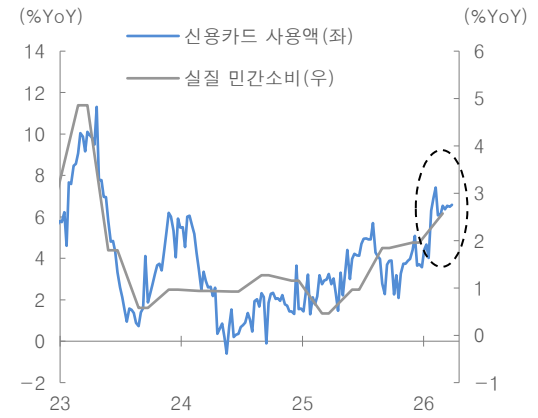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4월 소비심리는 큰 폭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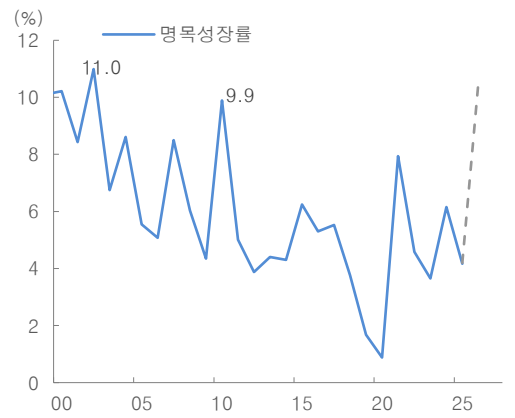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그러나 실제 소비 위축은 아직 없음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올해 명목성장률 10% 상회 예상



자료: CEIC,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담당자:이정훈)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